

일본경제의 동향과 과제에 관한 연구*

(A Study on Subject and Tendency
of Economy in Japan)

최 원 철**

(Choi, Won-Chul)

목 차

- I. 서론
- II. 중국경제의 부상
- III. 고비용 구조의 극복
- IV. 소비활성화를 위한 방안
- V. 기업의 수익성 악화
- VI. 결론

I. 서 론

지금 세계경제는 미국의 2001년 9.11 동시다발 테러 이후에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점진적으로 회복되는 방향으로 선회하는 듯 했으나 최근에 미국경제의 경우에는 잇따른 회계부정으로 인하여 대기업들이 도산되면서 주가가 연속하락하고 미국경제의 장래가 불투명해졌다.

* 이 논문은 2002년 5월 제주대학교 창립 50주년 기념 국제학술심포지움에서 발표한 논문임

** 제주대학교 경상대학 경제학과 교수

우리나라의 경제는 국내소비 활성화에 힘입어서 회복국면으로 선회하고 있다는 것이 확실하게 보여진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경기가 국내소비 확대에 힘입어서 좋아지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지만 여전히 불안한 요소들이 잠재되어 있는 것도 사실이다. 왜냐하면 우리경제는 여전히 설비투자가 늘어나지 않고 있으며 최근에 들어와서 약간씩 회복되고 있다고는 하나 본격적으로 회복되기에는 아직도 요원한 실정이다. 따라서 설비투자 와 수출이 본격적인 회복이 부진한 가운데 내수확대로만 경기가 과열되어 갈 경우에는 그 자체가 이미 많은 문제를 안고 있다고 보아지며 이러한 과열 현상이 거품이 꺼지면 불황으로 깊숙하게 빠지게 될 가능성도 전혀 배제 할 수는 없을 것이다. 현 시점에서 우리나라의 가계 빚만 하더라도 173조 5천억¹⁾이 되고 있는데 이것도 우리경제에 큰 부담이 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현재의 소비확대현상은 낮은 금리에다 대출 받기가 쉬워지고 카드사용이 용이한데서 연유되고 있다고 생각된다.

중요한 것은 투자와 수출의 확대에 따라서 경기가 호황국면으로 들어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려된다. 그리고 세계경제도 최근 미국경제의 점진적인 회복에 힘입어 회복추세에 있다고는 하나 이것도 몇 나라에 불과하고 아직도 대다수 나라들의 경기는 장래가 불투명한 상태에 머물러 있다.

그리고 미국만 하더라도 9.11 동시다발테러로 인한 경기침체의 후유증은 큰 것으로 사려된다. 다행히 그러한 후유증을 극복하고 경기침체에서 벗어나고 있다고는 하나 아직도 실업율은 5.8%로 높은 상태이고 기업들의 해고도 여전히 진행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미국의 경우에도 본격적으로 경기가 상승국면으로 접어들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생각된다. 또한 각 나라들의 경기가 상승국면으로 접어들었다고는 하지만 중국의 7%를 제외하고는 비교적 낮은 성장율에 머물고 있다. 시대는 바야흐로 안정성장, 낮은성장 시대로 접어들었다고 하여도 무방할 것이다.

그러면 일본경제에 대하여 검토 해보기로 한다.

10여년의 장기 경기침체에 빠져있었던 일본경제는 최근에 들어와서 다소 경기가 바닥을 쳐서 서서히 회복되어가고 있다는 조심스러운 관측들이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2002년 3월에 나온 「月例 經濟報告書²⁾」에 의하면 경기는 여전히 어려운 상황에 있다

1) 2002년 6월 현재

2) 1개월에 한 번 매달 발행되고 있는데 한 달간의 일본경제동향을 상세하게 전달해 주는 권위 있는 경제지이다.

고는 하나 바닥을 쳐서 회복의 방향으로 서서히 움직이고 있다는 견해를 발표하고 있다.

이러한 근거로는 미국이 예상외로 경기가 회복되어 가는 조짐을 보이고 있고 여기에 따라서 둔화되고 있던 수출도 약간씩 회복되어가고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정보기술 분야라던가 광공업분야에 있어서도 서서히 회복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것이다.

그렇지만 이러한 점진적인 회복의 조짐은 일부지표에 한정되어 있고 또한 이러한 회복의 흐름이 국내경제의 과감한 구조조정에 의해서 초래된 결과라기보다는 미국 경기에 힘입은 바 크다고 하겠다.

일본도 수출을 비롯하여 원료수입 등, 근원적으로 대외 의존도가 높은 나라이기 때문에 국제경제의 변화에 따라서 국내경기는 원점으로 돌아갈 가능성을 늘 안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일본경제는 근본적으로는 국내 경제의 구조개혁의 성공여부에 따라서 경제의 성패가 달려 있다고 하겠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경제는 지금도 여전히 불황의 상태에 놓여 있다고 볼 수 있겠다.

예를 들면, 수출이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고는 하나 여전히 담보 상태에 머물러 있고 투자도 부진한 상태에 머물러 있다. 게다가 디플레이 현상도 진행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중국상품들이 국내로 홍수같이 쏟아지고 있는 실정인즉 일본상품들이 경쟁력을 상실해가는 상태이다. 그리고 일본은 오랜 기간 경상수지의 흑자 국으로서 자리매김해 왔으나, 현재에도 흑자가 지속되고 있다고는 하지만 그 흑자폭이 감소되고 있는 추세이다. 예를 들면 1988년에는 15조엔이었던 경상흑자는 2000년도에 들어와서는 12조엔으로 감소되고 2001년에는 7조엔으로 감소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수지흑자가 감소추세에 있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하나는 자유무역주의에 입각해서 수입이 증가한다는 것은 그 만큼 상대방국들에 대한 시장을 제공함으로써 상대방국들이 경제성장을 초래하게 됨으로써 세계경제성장에 이바지하게 되는 것이고, 또 하나는 가격이 저렴하면서 품질이 양호한 상품들이 국내로 대량으로 유입됨으로 인하여 국내 소비자들이 그 만큼 상품선택의 범위가 넓어지고 이것이 결과적으로 국내수요를 확대시킬 수 있는 유인책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필요한 것이다.

일본기업 생산자의 입장에서는 경상수지의 감소가 치명적일 수도 있으나 소비자들의 입장에서는 값싸고 품질이 좋은 외국상품을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좋

은 면도 있다고 볼 수 있겠다.

II. 중국경제의 부상

최근의 중국경제의 부상으로 인하여 한국, 일본의 경제인들을 비롯하여 세계의 경제인들의 이목이 중국으로 집중되고 있다. 중국은 그 만큼 자원매장량의 가능성과 더불어서 성장잠재력이 큰 나라라고 할 수 있겠다. 그리고 국토가 광대하고 여기에 따른 폭발적인 수요발생이 예견되면서 세계의 기업인들은 앞다투어 중국으로 진출하고 있다. 그리고 외국기업들의 중국 선호도가 높은 것은 중국정부에서 외국의 직접투자자들에 대해서 투자를 자유롭게 마음껏 할 수 있다는 분위기와 환경을 잘 조성해 줌으로 인하여 그 곳에서 기업을 설립하고 경영하면서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고, 또 한가지의 큰 장점은 풍부한 노동인력과 저렴한 임금수준으로 노동자를 고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것이다. 마치 우리나라가 1960년대 초반부터 공업화를 진전시키는 과정에서 기업들은 수준 높은 노동인력을 고용해서 높은 수익을 올리면서 기업을 확대시켜 간 것과 유사한 것으로서, 지금의 중국의 경우에도 차원은 다르다고 하나 그때와 비슷한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중국정부가 다국적기업에 대한 우대로 인하여 다국적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중국으로 진출함으로써 중국경제는 다른 나라들이 저성장에 머물고 경기불황에 허덕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7%란 높은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중국은 기술개발, 기술진보를 지속적으로 이어가면서 아직까지는 기술집약적인 제품이라기보다는 노동집약적인 제품으로 해외시장에서의 쉐어(share)를 확대시켜 나가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추세는 앞으로도 계속 되리라고 보는 것이다. 이미 이러한 측면이 나타나고 있지만 노동집약적인 제품뿐만 아니라 기술집약적인 제품들도 다량으로 생산되면서 해외시장의 쉐어(share)를 지속적으로 확대시켜 나가리라고 생각된다.

이렇게 중국은 관민이 합동으로 다국적 기업들을 맞이하고, 다국적 기업들은 중국으로 진출하면서 기업을 비롯하여 공장을 설립하면서 현지화를 추진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중국에서 생산되어진 제품들이 세계시장으로 폭 넓게 진출하고 있고 일본으로도 홍수와 같이 쏟아지고 있는 면을 볼 수 있다. 말하자면 품질이 비교적 양호하면서 가격이 저렴한 중국제품들이 일본시장으로 계속 유입되면서 일본의 경우에는 기존의 노동집약적인 제조업 산업에 타격을 주게되고 일본의 국내물가하락³⁾의 요인이 되고 있는 것이다. 또한 경상수지 흑자폭이 줄어들고 있는 것도 중국을 비롯하여 여타 아시아 지역으로부터 수입이 확대되면서 수지흑자의 폭이 감소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이렇듯 일본이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가운데 일본 제조업의 상품들은 적어도 국내에서는 가격이 너무 높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업들은 여전히 높은 가격을 유지하려는 면을 볼 수 있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중국을 위시해서 동남아제국으로부터 가격이 저렴하고 품질도 비교적 양호한 제품들이 몰밀 듯이 밀려옴으로써 일본은 가격과 품질 양면에서 경쟁력을 잃어가고 국내 소비자들로부터 외면 당하는 상황이 전개되면서 물가가 하락해 가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또한 현재 일본 경제는 디플레이션(deflation)도 해결해야 할 과제로 제기되고 있다. 더욱이 기업들은 가격면에서 경쟁력을 상실해 가는 일부 제조업체들의 경우에는 생산기반을 중국으로 옮겨가는 사례가 빈번해 지면서 이로 인하여 산업의 공동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데 이것 또한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생각한다. 뿐만 아니라 중국으로 생산기반을 이동해서 그 곳에서 저렴한 임금으로 생산되어진 제품들이 일본으로 역수입이 이루어지면서 국내 물가가 하락하는 이중고를 겪고 있다.

Ⅲ. 고비용 구조의 극복

진술한 바와 같이 산업공동화가 확대되어 간다는 것은 비교적 국내의 우량기업들도 생산기반을 중국을 비롯하여 동남아시아로 옮겨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로 인하여 일본 국내의 산업은 그 만큼 공동화가 진전되고 이에 따라서 실업률도 높아지게 되는 것이다.

결국 이러한 상황이 전개되고 있는 것은 일본국내의 고비용 구조에서 비롯되고 있

3) 국내 물가 하락으로 기업들이 어려움이 많으나 이러한 현상이 소비중대의 계기가 된다는 점에서 장점이 많다. 일본은 내수부진이 제일 문제이기 때문이다.

다고 볼 수 있겠다. 또한 일본의 경우에는 이러한 고비용 관제로 다국적 기업들이 일본으로 진출하기가 어려운 측면도 있는 것이다. 이것은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같은 원리가 되겠다.

또 한편으로는 일본은 전술한 바와 같이 중국을 위시해서 동남아시아로부터 다양한 제품들이 국내로 대량 유입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바람직한 측면도 있는 것이다. 왜냐하면 일본의 제조업 제품의 경우에는 고생산비용에 의한 높은 가격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고비용을 저비용으로 낮추어야 할 필요성이 늘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중국을 비롯하여 동남아시아 제국으로부터 저렴한 상품수입이 계속 확대되게 되면 그 만큼 일본소비자들의 경우에는 상품선택의 폭이 넓어지면서 저렴한 외국 상품들을 구매할 수 있는 것이고, 일본의 기업들도 외국의 저렴한 상품들과 경쟁하면서 생존하기 위해서는 상품가격을 인하하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국내물가가 전체적으로 하락하면서 일본경제는 저비용체질로 전환 될 수도 있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소비의 냉각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문제도 해결되어 나갈 것이고, 말하자면 이것을 계기로 해서 소비를 늘릴 수 있는 돌파구를 마련 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재의 정황으로 봐서 일본의 불황의 최대 요인은 소비부진으로 되어있고, 소비가 회복되면 수출과 더불어서 경기가 회복 될 수 있다는 예측인데 지금까지 어떠한 정책을 쓰더라도 소비가 회복되지 않고 있는 상황을 감안 할 때에 일본은 디플레이션(deflation)극복에 대해서만 관심을 보일 것이 아니라 이것을 계기로 해서 경제의 저비용체질로 전환 할 수 있는 구조개혁의 계기로 삼을 수 있는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다.

1. 투자환경 조성

산업공동화⁴⁾가 진전된다는 것은 국내에서 기업경영을 할 경우에 높은 노동임금이라든가, 높은 세율, 지나친 규제 등으로 인하여 기업들이 채산성이 안 맞기 때문에 초래되는 현상으로 볼 수 있겠다. 따라서 이러한 흐름을 근원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는 고비용 구조개선 의 일환으로서 어느 정도의 디플레이션(deflation)을 감내하지 않으면 안

4) 吉富勝, 日本經濟の眞實, (1998), pp.204-208 참조

될 것이다. 또한 공공요금을 인하한다든가 고용·임금 시스템(system)의 유연성을 강화할 필요도 있는 것이다. 그러나 중·장기적으로 볼 때에 경제의 활력이라든가 생활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산·학협동에 의한 제도적인 정비라든가 새로운 산업기반의 형성에 끊임없이 노력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일본의 또 다른 문제는 경기침체로 인하여 도산되어가는 기업체는 늘어나도 새롭게 탄생하는 기업이 적다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의 전개는 결코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서 문제는 새로운 벤처(venture)기업⁵⁾들이 끊임없이 진입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재정비가 요구되며 그러기 위해서는 새롭게 탄생하는 벤처기업들의 진입장벽을 제거해야 할 것이다. 예를 들면, 규제완화라든가 규제철폐⁶⁾와 같은 특단의 조치들이 불가피하다 하겠다.

또 한가지는 외국기업들의 경우에도 대일 투자를 감행함에 있어서는 고비용을 비롯하여 규제와 같은 장애요인들이 많다는 것이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면도 제도적인 재정비를 단행함으로써, 또한 외국인들이 투자가 촉진 될 수 있도록 투자환경과 분위기를 잘 조성해 줌으로 인하여 대일 투자도 대폭적으로 확대 될 수 가 있고 그로 인하여 국내경제 활성화가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IV. 소비활성화를 위한 방안

일본의 경우에는 내수부진이 경기침체의 중요한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지금도 일본경제는 수출이 다소 둔화되고 있다고는 하나 여전히 경상수지 흑자국이고 2002年 2月만해도 경상수지 흑자는 8961억엔이다. 그러나 이러한 경상수지 흑자만 가지고는 경기를 활성화시키는 데는 역부족이다.

중요한 것은 수요가 진작되어야 되는데 지금까지 유효수요를 확대시키기 위해서 다방면으로 진력해 왔지만 아직도 효과가 별로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일본경제는 앞으

5) 일본은 도산되는 기업이 많은데 반하여 새롭게 탄생되는 기업은 적은 편이다. 새로운 기업을 손쉽게 창출 할 수 있는 제반 여건이 조성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6) 飯田經夫, PHP, 日本經濟の結末, pp.193-202 참조

로도 소비를 회복시킬 수 있는 획기적인 계기가 마련되지 않고서는 미래에도 경기회복은 요원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일본경제가 아직도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 배경에는 소비가 냉각화되고 수출도 감소되면서 거기에다가 물가도 하락함으로 인하여 기업들의 수익성이 감소되면서 설비투자도 감소되고 있는 것이다. 그로 인하여 실업률도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또한 기업들의 수익성 감소로 인하여 해고의 붐이 일면서 인건비 삭감 현상도 확대되면서 소득수준이 낮아지고 거기에 따라서 소비수준까지 낮아지는 악순환이 지속되고 있는 것이다.

최근에는 일본기업들이 임금상승은 기대하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노동조합에서도 시대가 시대인 만큼 임금을 올려주지 않아도 좋으니 종업원들을 해고하지 말아달라고 당부할 정도이다.

향후 미국경제가 본격적으로 회복되고 거기에 따라서 IT분야의 수출이 증가되고 기업 설비투자가 늘어나면서 물가도 지속적으로 하락하게 되면 소비증대도 기대해 볼 만하다. 지금 상태로서는 물가가 계속 하락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비증대 효과가 나타나지 않아서 곤경에 처해 있으나, 앞으로 토지가격이라든가 건설자재가격 등이 하락하게 되면 주택가격도 하락하게 되면서 이 분야에서의 수요증가를 기대해 볼 만하다.

문제는 미국경제가 지속적으로 회복방향으로 나아가게 되면 수출은 회복이 될 가능성이 있고, 또한 구조개혁이 신속하게 이루어지게 되면 주가도 올라가게 되고 개인 소비도 상승될 수 있다는 것을 가상적으로 생각해 볼 수는 있는 것이다. 그런데 현재도 구조개혁이 지속적으로 진행되면서 인원감축이 뒤따르고 이렇게 되면 소비 활성화를 기대하기가 어려워진다. 또한 소비의 냉각화 원인은 국민 대다수가 미래에 대한 불안한 심정의 발로라고 하겠다. 경제란 것은 인간의 심리적인 요소에 의해서 크게 좌우되는 면이 농후하다고 하겠는데 현재 일본 국민들은 불황이 장기화되면서 또한 고령화가 진전되면서 장래를 대비한다는 차원에서 저축을 해두고 쓰지 않으려는 심리가 강하게 작용하고 있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정부는 국민들에 대해서 미래에 대한 불안 요소들을 제거해주고 안심하고 경제활동 또는 소비활동을 해 나갈 수 있도록 정책적인 배려가 필요한 시점이다. 계획성 있는 경제생활로 미래를 설계하고 철두철미하게 미래를 대비하는 국민들일수록 소비부족 현상이 나타나기 쉬운 것이다.

V. 기업의 수익성 악화

민간 신용기관이 지난 2001년 12월에 발표한 바에 의하면 일본은 2001년에 기업도산 건수는 2만 52건으로 전후 두 번째로 많은 도산 건수를 기록하고 있다. 그리고 17년만에 전후 두 번째 2만건의 도산에 이르게 된 것이다. 여기에 따른 부채총액은 16조 1408억엔으로 이것도 전후 두 번째의 부채비율이라고 할 수 있겠다.

이러한 상황에서 일본기업들의 수익측면을 보면 2000년 후반기에 들어와서 수익악화 국면으로 들어서게 된다. 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불황이 지속되면서 기업들의 수익악화를 부채질하게 되었다. 알려진 바와 같이 일본의 제조업분야에서도 기업의 수익악화가 초래되고 있다는 것이다.

그 원인을 보면 세계경제의 전반적인 침체상태에서 대미 수출둔화가 큰 요인이라고 지적 할 수 있을 것이다. 내수기반이 취약한 상황에서는 더더욱 그렇다고 생각된다. 더욱이 간과해서는 안 되는 사항은 일본은 IT(정보기술) 산업육성에 총력을 기울여 왔고 이 분야의 제품을 중점적으로 수출해 왔는데 미국을 위시하여 정보기술 분야의 불황이 도래됨으로써 수출 부진에 빠지게 되었고 이로 인하여 경상이익은 4분의1로 떨어지게 되었다. 정보기술분야 뿐만 아니라 철강, 전기, 기계류 분야도 연동해서 수출부진으로 이어지면서 기업수익 감소로 전락하게 된 것이다.

이와 같이 기업의 수익감소는 투자부진으로 이어지고 투자부진으로 인하여 종업원 해고가 확대되면서 실업자를 양산하게 된다. 기업의 수익감소와 실업자가 양산되면 다시 소비위축으로 이어지면서 경기는 더욱 얼어붙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투자가 촉진되면서 생산성이 향상되고 매출액을 올리면서 고용기회를 확대시키기 위해서는 수출과 내수가 병행해서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될 것이다.

VI. 결 론

그러면 향후 일본경제의 불황을 본격적으로 극복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처방들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한가에 대해서 검토해 보기로 한다.

1) 우선은 수출이 최근에 와서 약간씩 회복되는 추세에 있는데 이 흐름을 계속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2) 소비활성화 문제를 들 수 있다. 일본경제는 전술한 바와 같이 수출만으로 경기회복을 기대하기는 어렵고 반드시 내수확대의 뒷받침이 되어야 한다. 지금까지의 장기불황도 이것이 전부는 아니지만 내수가 좀처럼 활성화되지 못한데서 기인되었다. 이러한 소비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장기불황에 따른 국민들의 심리상태가 불안정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러한 불안한 요소들을 제거해주고 지나치게 장래에 대한 비관적인 견해를 피력한다든가 불황을 우려하는 지나친 호들갑을 떨어서는 안 된다고 본다. 이렇게 되면 노후대책이라든가 장래를 대비하는 준비가 과잉으로 발전되어서 소비를 극력 억제해서 저축으로 자본금이 지나치게 돌려질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일본은 아직도 1400조엔의 개인금융자산⁷⁾이 존재 하고있고 이것을 풀 수 있는 인센티브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3) 또한 소비를 진작시키기 위해서는 세계개혁 「稅制改革」의 일환으로서 감세정책 「減稅政策⁸⁾」도 바람직하다고 본다. 소득 가운데 세금이 줄어들면 투자와 소비증대로 연결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소득세, 상속세, 주택 취득세 등의 세율이 너무 높다는 평가가 자자한데 이러한 분야에 대한 세금을 인하하여 줌으로써 기업 할 의욕과 노동 할 의욕을 고취시켜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이렇게 되면 생산성이 향상되고 유효수요를 창출하면서 내수를 확대시킬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일본은 세계개혁이 필요하고 과거 미국의 레이건 행정부가 감세정책으로 인하여 경기를 활성화시킨 사례도 있다는 것을 유념해야 할 것이다.

7) 일본은 1400조엔의 개인 자산이 있는 부자의 나라이다. 이 엄청난 자산을 어느 정도 소비확대로 연결이 될 수 있다면 경기회복은 시간문제가 될 것이다.

8) 미국도 과거 레이건 행정부 때에 감세 정책으로 경기를 진작시킨 역사가 있다. 일본도 이 시점에서 시도 해 볼만 하다.

4) 그 다음으로 금융 시스템(system)의 안정이 요구되는데 여기에는 은행들이 안고 있는 크고 작은 부실채권을 신속하게 정리하는 문제가 매우 중요하다 하겠다. 얼마 전에 금융감독청에서는 일본에서 비교적 규모가 큰 시중은행 13개은행에 대하여 특별 감사를 실시한 결과 2002년 3월 결산기를 기준으로 13개 은행들이 부실채권처리 손실액은 7조 8천억엔에 달했다. 작년 11월 시점보다 1조 4천억엔이 증가한 셈이다. 이 13개 은행들을 비롯하여 모든 금융기관들의 총 부실 채권규모는 약 70조엔으로 추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막대한 부실채권이 일본경제 발전에 큰 걸림돌로 작용하는 것은 틀림없다. 이러한 부실채권을 처리함에 있어서는 공적자금을 신속하게 투입해서 하루빨리 은행부실의 건전화를 도모해서 은행들이 정상을 되찾는 것이 선결 문제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부실채권 문제로 기업들에 대한 대출을 꺼려하고 그로 인하여 기업도산율도 높아지고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할 것이다.

5) 구조개혁의 일환으로 재정문제를 제기 할 수 있다. 일본의 재정문제는 인구의 고령화가 진전되는 가운데 재정지출이 늘어나는 것은 불가피 하다고 하겠으나 그 밖에도 공공투자의 실패를 들 수 있다. 예를 들면 경기진작을 위해서 재정투자의 확대라든가, 또한 각 지방에 있어서 불필요한 도로·항만·교량등의 건설에 막대한 재정지출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분야에 대한 재정지출을 대폭 줄여야 할 것이다. 일본의 재정적자는 GDP의 130%가 넘어가고 있는데 이것은 미래에 일본경제발전에 큰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다. 세입을 증대시키기 위해서는 경기호황이 가장 바람직한 것인데 이것은 단시일내에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재정지출을 과감하게 삭감하는 방향으로 정책운영의 묘를 살려야 할 것이다.

6) 끝으로 일본정부의 구조개혁을 신속하고 과감하게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 일본은 구조개혁이란 목표를 내세워서 추진해 온지가 오래다. 그러나 그 성과는 미미하고 실제적으로는 좀처럼 진전이 안되고 있는 면을 볼 수 있다. 말로만 경제구조개혁을 요란하게 제창할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청사진을 제시해서 신속하고 과감하게 추진해야 할 것이다. 일본의 구조개혁이 너무 느리다는 내외의 비판을 참고로 삼아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KDI (2002), 나라경제, 경제정보센터

한국경제학회 (2000), 한국경제연구 4권

한일 경상학회 (2001), 한일 경상논집 2001년집

한국개발연구원 (2001), 열린세상 유연한 경제

하시모토류타로, 신장철 역 (1998), 일본경제론, 숭실대학 출판사

飯田 經夫 (1998), 日本經濟 成長の 結末, PHP 研究所

吉富勝 (1998), 日本經濟の眞實, 東洋經濟新報社

加藤寬 (2001), 日本新生論, ビジネス社

上田克己 (1998), アジア危機 からの再生, 日本經濟新聞社